


보도자료		 <div>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div>
배포 일자	2024. 7. 17.(수) / 총 3매 (본문 2, 붙임 1)	
자료 제공	<div>• 경제전략연구본부</div> <div>- 김민수 본부장 (051-797-4789)</div> <div>- 박예나 전문연구원 (051-797-4763)</div>	
배포 부서	<div>•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051-797-4381, 4396)</div>	
보도 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AI(인공지능)가 여는 초격차 성장 시대 논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제6차 해양수산 초격차 포럼」 개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종덕)은 7월 16일(화) 오전 부산 롯데호텔 41층 에메랄드홀에서 「제6차 해양수산 초격차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년 시작된 ‘해양수산 초격차 포럼’은 정부의 ‘초격차’ 국정과제와 연계해 다양한 분야의 초격차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해양수산 분야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개회식에는 해양수산 초격차 포럼의 공동의장인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을 비롯해 해양수산 분야 산·학·연·정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장제국 공동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전 세계 산업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해양수산 분야 역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말하면서 “AI 기술은 해양수산의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조 강연에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황종성 원장이 ‘AI가 여는 초격차 성장 시대’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 원장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지능 사물 시대, 탈 희소 사회, 개인의 증강 등 AI 문명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AI 기술 도입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 패널 토론 좌장을 맡아 해양수산 분야 AI 활용 방안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이어 나갔다. 토론에는 △이상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 △마창모 KMI 수산연구본부장 △배혜림 부산대 산업공학과 교수 △이철용 KIOST 해양빅데이터·AI센터장 △최현택 KRISO 지능형선박연구본부 박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생성형 AI 시대에 걸맞은 해양 분야 사용자 경험(UX) 개발 △도메인 지식 기반 임베딩 모델 구축 △AI 기반 해양수산 초격차 성장을 위한 과제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및 AI 전문인력양성 △조선·선박·해운 분야의 AI 잠재력과 타 분야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기술 개발의 중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KMI 김종덕 원장은 “AI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국가·대학·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KMI는 AI 분석지원실을 원장 직할로 신설하여 통합적인 AI 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클러스터 협의체를 통해 각 기관의 AI 관련 활동을 집약하고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AI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상기 보도자료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 및 취재지원 필요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박예나 전문연구원(051-797-4763) <yena719@kmi.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사사진 (JPG 파일 별도 송부)

